

2024년 11월

국내외 채권전망

2024. 10

Executive Summary

01 미국 채권

- 레포 금리 불안, 트럼프 트레이드, 지표 호조 등 리스크 부각. 현재 금리인 4.2% 정도는 상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한 레벨이라고 판단
- 연말까지는 10년금리 다시 4% 하회 가능성 높을 것

02 미국 크레딧

- 최근 주식시장 반등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인해 최하위 등급 크레딧 강세가 전체 강세 견인 중이지만, 최근 단기 자금 시장 불안 나타나는 가운데 대선 등 불확실성도 가중. 중립

03 신흥국 채권

- 이스라엘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어지는 가운데 달러 강세 압력 연장을 신흥국 채권 투자심리 부진
- 브라질과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이어진다는 점도 부담

Executive Summary

04 한국 국공채

- 미국과 비교하여 기준금리와 장기물 금리 모두 추가 하락 여력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향후 12개월 약 20~30bp 정도 하락 여력은 남아 있다고 판단. 3개월과 12개월 모두 비중 확대

05 한국 크레딧

- 경기 둔화 사이클 본격적으로 시작돼 스프레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회사채 수요 유입 지속되면서 스프레드 상단은 제한될 전망

결론: 미국채 > 한국채 (OW) > 미국 크레딧 = 신흥국 국채 = 한국 크레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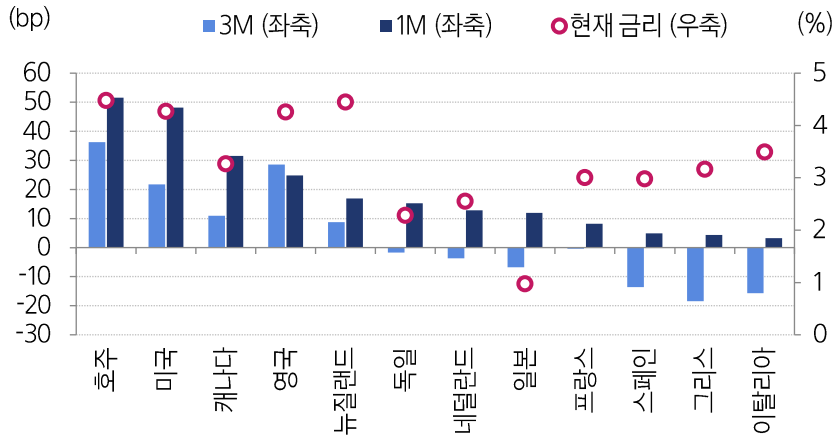
글로벌 채권 Review

			글로벌 종합	선진국 정부채	글로벌 투자등급	글로벌 하이일드	미국 정부채	유로존 정부채	미국 투자등급	미국 하이일드	유럽 투자등급	유럽 하이일드	신용시장 정부채(\$)	신용시장 정부채(LC, Hedged USD)	신용시장 정부채(LC, Unhedged USD)	한국 국공채
Performance	1M	%	(3.31)	(3.87)	(2.48)	(0.83)	(2.39)	(0.36)	(2.34)	(0.40)	0.28	0.65	(1.68)	(1.15)	(4.49)	(0.63)
	3M	%	0.66	0.44	1.21	2.90	0.04	1.34	0.96	2.86	1.81	2.76	2.45	1.07	0.59	0.47
	YTD	%	0.17	(1.40)	2.71	7.50	1.37	1.60	2.86	7.58	4.12	6.96	6.81	3.35	(0.02)	3.74
	1Y	%	9.60	7.92	13.20	16.96	8.34	8.48	13.74	16.64	9.42	13.17	18.20	7.80	9.08	12.21
	3Y	%	(11.69)	(15.68)	(6.70)	6.71	(7.27)	(11.15)	(5.99)	9.34	(2.64)	7.54	(2.89)	1.15	(5.98)	6.09
Spread	현재	bp	55.3	11.1	91.1	300.6	-	-	82.1	279.4	103.9	331.8	337.7	-	-	-
	1M	bp	1.4	(0.7)	(8.9)	(16.3)	-	-	(6.7)	(15.6)	(13.3)	(12.9)	(23.4)	-	-	-
	3M	bp	4.9	(0.5)	(10.0)	(33.1)	-	-	(11.4)	(34.9)	(6.5)	(32.6)	(62.6)	-	-	-
	YTD	bp	6.8	(1.8)	(23.7)	(58.9)	-	-	(16.6)	(43.9)	(33.8)	(49.4)	(46.3)	-	-	-
	1Y	bp	0.3	(3.5)	(51.3)	(160.7)	-	-	(47.2)	(157.7)	(56.5)	(141.4)	(98.4)	-	-	-
	3Y	bp	37.2	(0.5)	0.3	(39.8)	-	-	(5.0)	(7.3)	17.0	28.8	(20.7)	-	-	-
YTW	현재	%	3.60	3.10	4.61	7.03	4.25	2.69	5.12	7.27	3.16	5.64	7.73	-	6.39	3.06
	1M	bp	27.1	25.0	27.7	19.9	48.0	8.0	40.2	28.1	(2.4)	(5.3)	24.3	-	28.0	9.6
	3M	bp	(2.1)	(1.1)	(9.6)	(37.9)	5.5	(18.6)	(1.4)	(32.2)	(29.9)	(63.4)	(45.0)	-	1.5	(1.1)
	YTD	bp	8.5	18.1	(7.8)	(55.3)	16.2	3.0	6.8	(32.2)	(35.9)	(86.1)	(11.7)	-	19.6	(21.5)
	1Y	bp	(74.7)	(49.9)	(125.6)	(232.4)	(79.1)	(77.0)	(122.6)	(221.5)	(128.8)	(247.3)	(164.4)	-	(46.5)	(109.9)
	3Y	bp	230.5	216.2	281.9	264.5	310.9	250.6	290.4	304.6	267.3	276.1	259.0	-	74.0	78.4
Duration	현재	년	6.62	7.28	6.13	3.40	5.96	7.37	7.12	3.49	4.53	3.03	6.65	-	5.14	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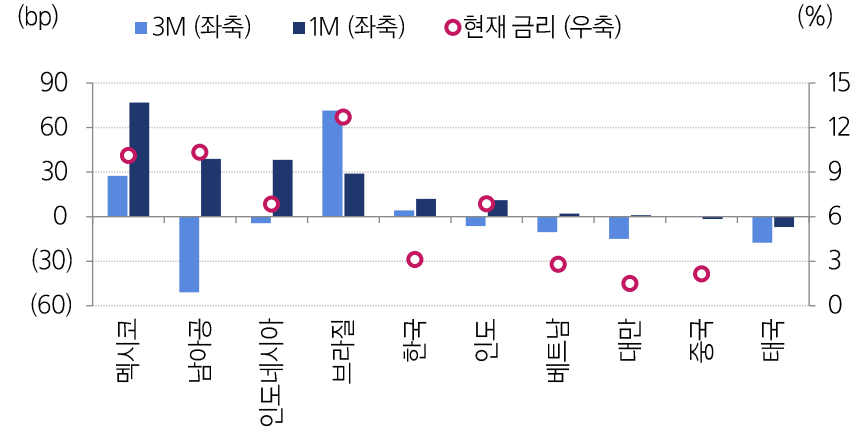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 신용국 달러표시 정부채-JP morgan EMBIG Diversified Core, 신용국 로컬통화표시 정부채- JP morgan GBI-EM, 그 밖의 지수는 Bloomberg Barclays 기준

상반기 글로벌 채권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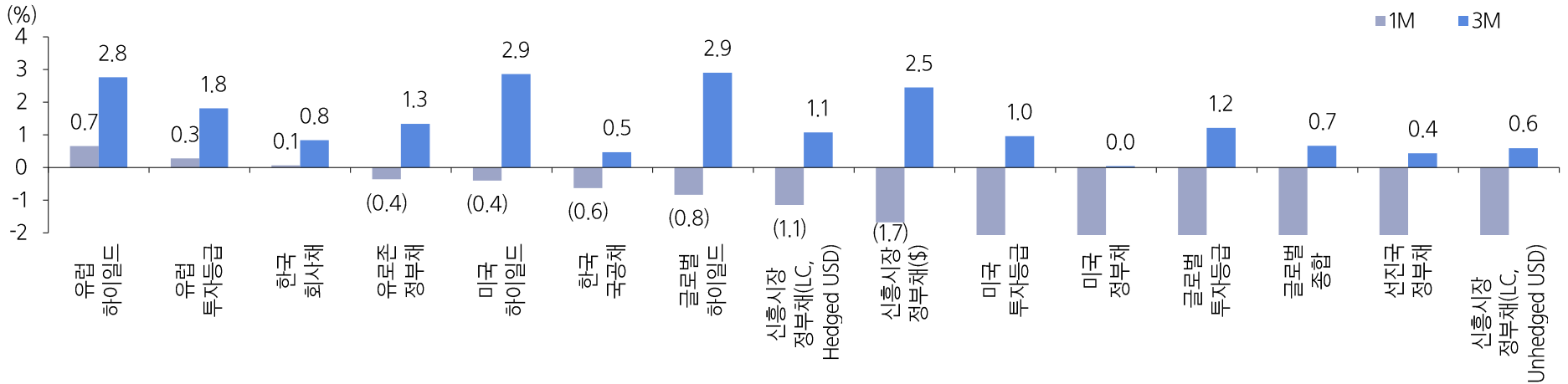
선진국 국채 10년 금리 변동과 현재 금리



신흥국 국채 10년 금리 변동과 현재 금리



채권 자산군별 총 수익률



자료: Bloomberg/ 주: 신흥국 달러표시 정부채-JP morgan EMBIG Diversified Core, 신흥국 로컬통화표시 정부채- JP morgan GBI-EM, 그 밖의 지수는 Bloomberg Barclays 기준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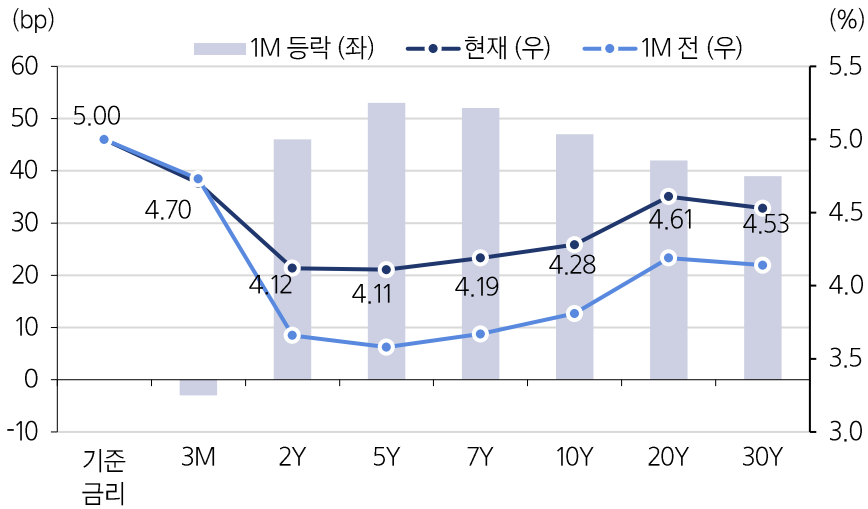
미국 국채

미국 채권 Review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지표 서프라이즈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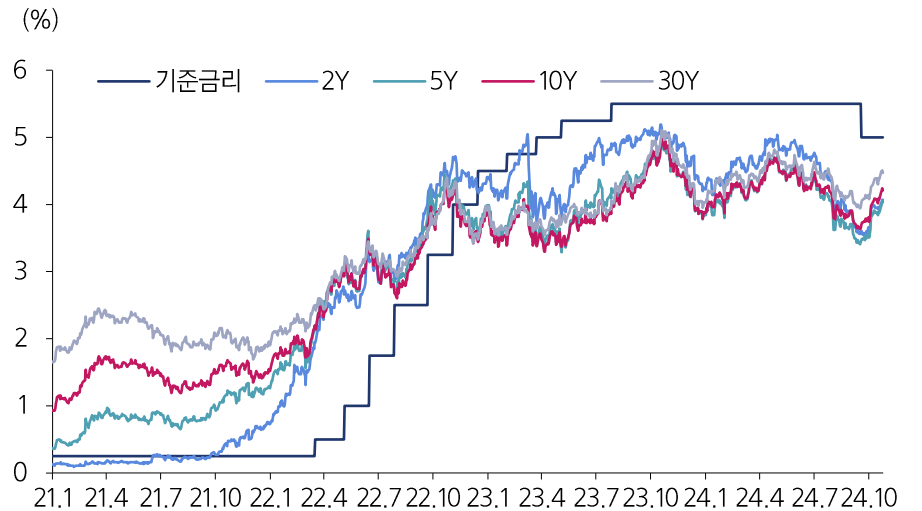
-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로 전환되자 장기물 금리 큰폭 상승
- 고용과 물가 서프라이즈까지 가세하며 11월 FOMC 인하에 베팅하는 확률까지 축소. 이에 따라 단기물 금리도 상승
- 2/10년 금리차는 전구간의 금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

장단기물 금리 모두 상승



자료: Thomson Reuters

만기물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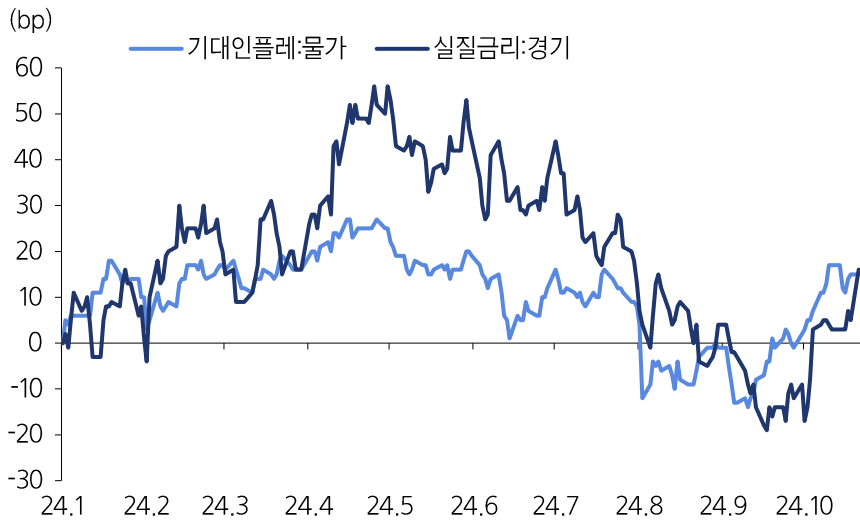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트럼프 트레이드 한달간 50bp 오른 10년 금리

트럼프 트레이드, 물가 및 고용 서프라이즈, 유가 급등 등 악재 확인

- 경합주의 트럼프 승리 가능성 확대. 공화당이 양원 스윙할 가능성까지 고조
- 국채 10년 금리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9월 20일 이후로 약 51bp 상승
- 50bp 중 기대 물가의 기여는 약 33%로 유가 급등과 소비자물가 서프라이즈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
- 50bp 중 67%에 해당하는 33bp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따른 수급 불안(재정적자 확대)과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등이 모두 혼재된 상승분

10년 금리 분해: 물가와 경기 요인 모두 상승



자료: Bloomberg

트럼프 당선가능성 높아지며 상승하는 10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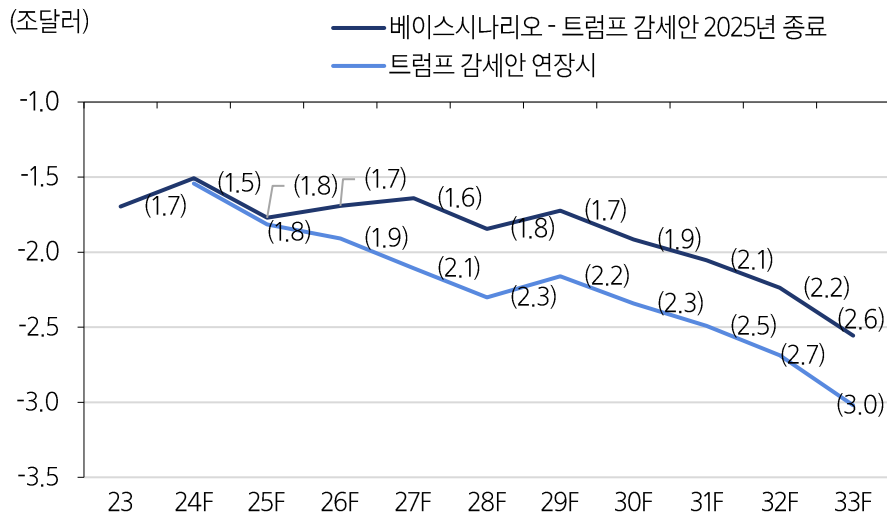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트럼프 트레이드 이미 충분히 반영한 듯

트럼프 당선시 10년동안 정부부채 3.9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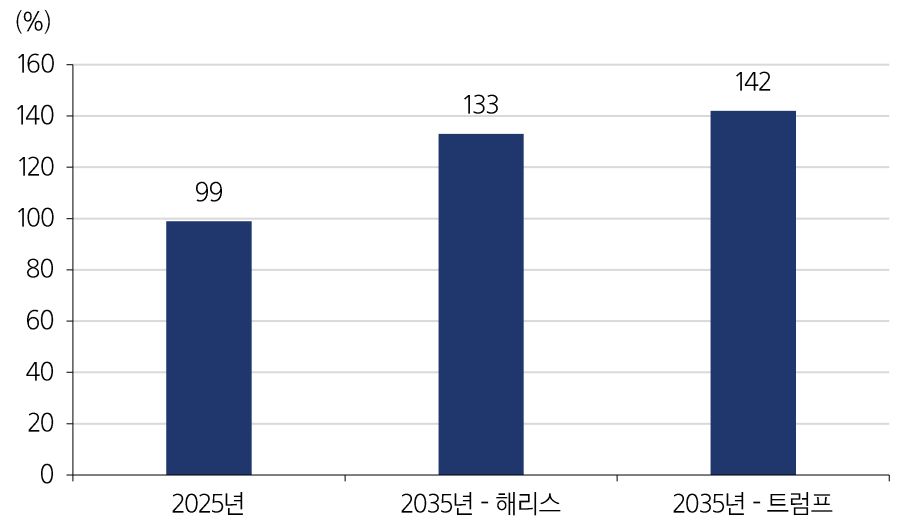
- 2025년 종료되는 Tax cut Job Act(TCJA) 를 연장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이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
- TCJA 종료시 2025~2034년까지 누적 재정적자는 총 20조달러로 추정, TCJA 연장 시 23.8조달러. 종료하는 시나리오 대비 3.9조달러 증가
- 소비자물가, 소매판매, 정부부채, 연준정책으로 다중회귀 시, 정부부채 1조달러 증가시 10년 금리 3bp 상승 효과 추정 (최근 10년 데이터 사용)
- 트럼프 관련 재정적자 증가에 따른 금리 상승 효과는 3.9조 x 3bp = 11.7bp 로 계산. 최근 한달 실질금리 33bp 상승해 이론적으로는 트럼프 관련 우려 충분히 반영했다 판단

트럼프 감세안 연장 시 재정적자 변화 경로



자료: CBO

대통령 후보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예상치 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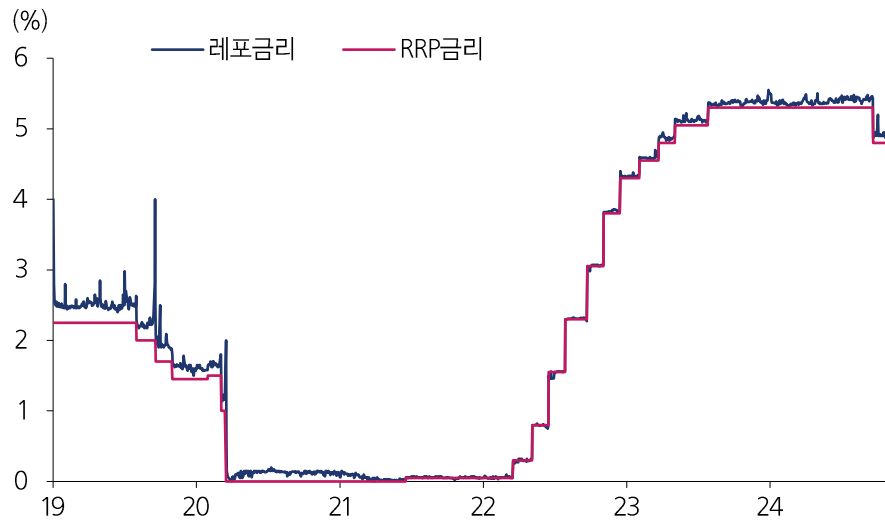
자료: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단기 시장 불안 레포금리 급등 이후 재차 안정

분기말 수요 더해진 영향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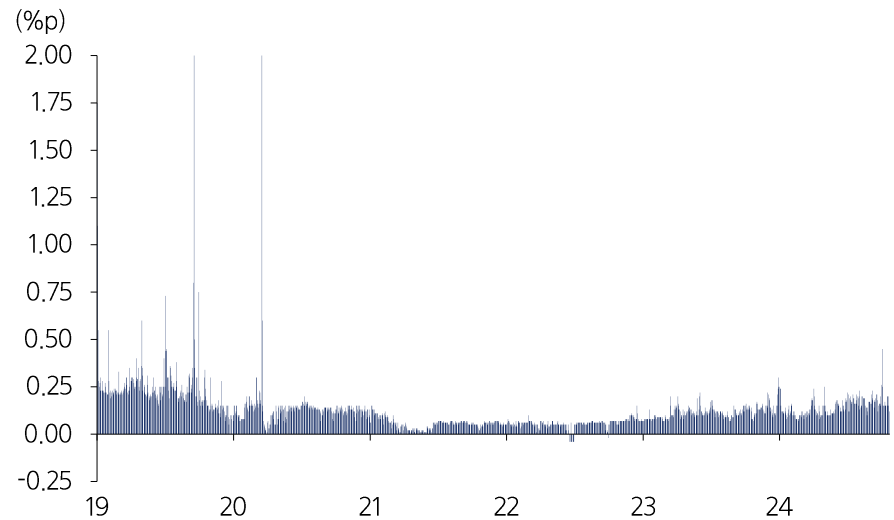
- 9월 30일~ 10월 1일 레포금리 약 30bp 급등. 레포금리-역RP금리 스프레드 40bp까지 확대되며 단기자금 고갈에 대한 우려 고조
- 2019년에도 연준의 지속된 QT로 기준금이 감소한 가운데 월말,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 등이 더해지며 레포금리 불안을 경험
- 특히 9월 17일 레포금리-역RP금리 200bp까지 확대된 이후 연준은 이를 단기자금 고갈로 인식하고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QT 중단
- 이번에도 레포금리 불안으로 다음달 FOMC에서 바로 QT 중단 가능하지 않냐는 논의까지

레포금리



자료: Bloomberg

레포금리-RRP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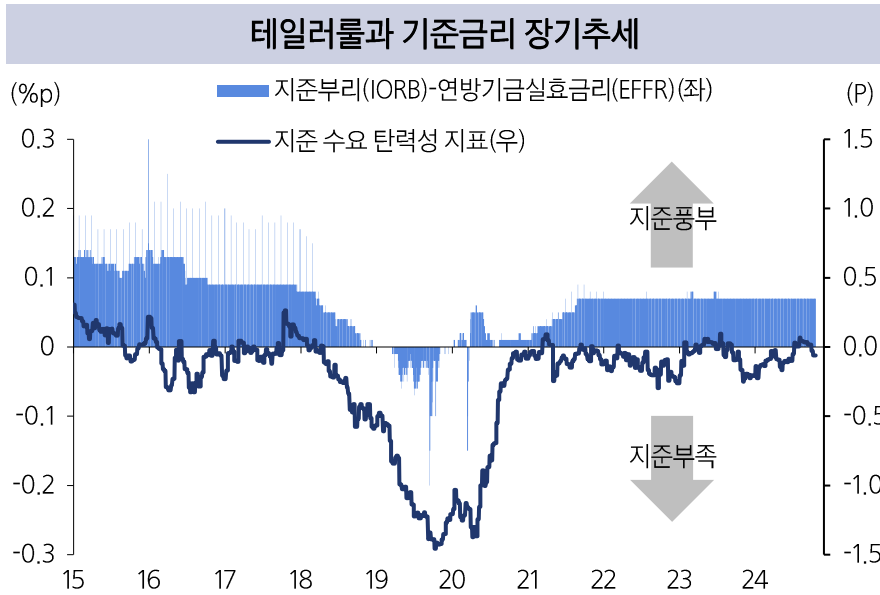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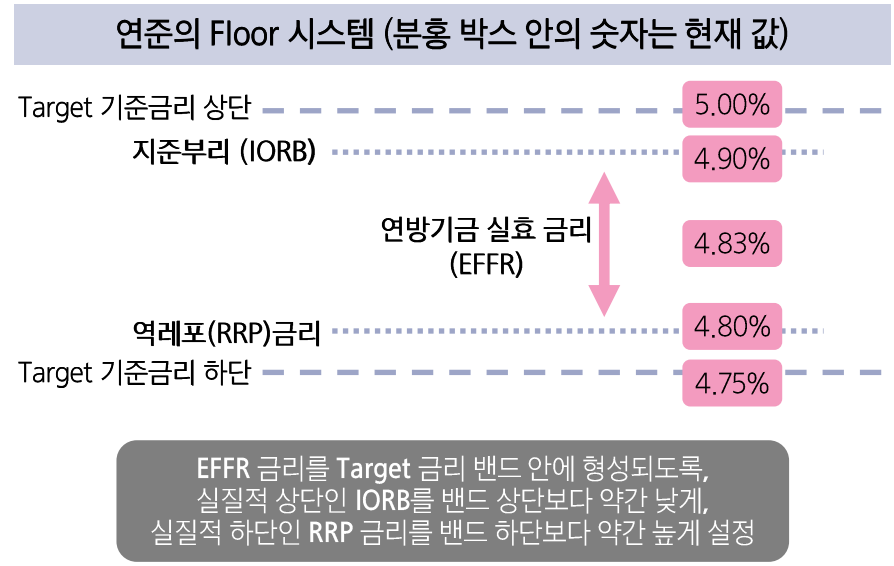
단기 시장 불안 레포금리 급등 이후 재차 안정

뉴욕 연은의 지준 수요 탄력성 지표도 아직은 안정권

- 뉴욕 연은은 10월 17일 지준 수요 탄력성 지표 공개. 지급준비금의 규모가 은행총자산 대비 1% 변화에 대한 연방기금 실효금리와 지준부리율 (IORB) 스프레드 변동폭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지표
- 지준이 충분할 경우 지준 규모 변화에 따른 연방기금 실효금리의 변화는 없으며 이때 지표는 0. 지준이 희소해질 경우, 지준이 감소할 때 연방기금 실효금리는 상승하게 되며 이때 지표는 마이너스에 진입
- 10월 초부터 해당지표 중간값은 마이너스(-)권 진입했으나, 뉴욕연은은 이 수준이 0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아 아직 지준이 충분하다고 판단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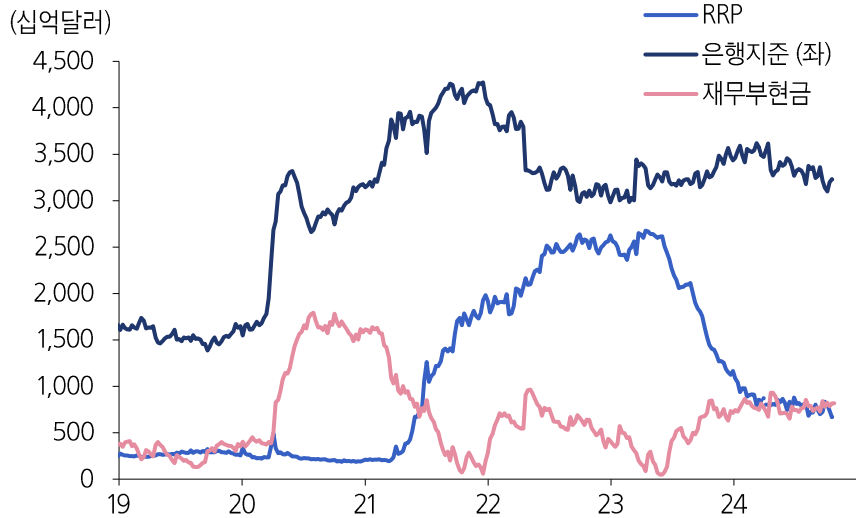
자료: 삼성자산운용

단기 시장 불안 아직은 아니나 내년 초 QT 중단 예상

역레포 시장의 단기자금 완충 능력 점차 감소. 연말 단기자금 경색 우려 재부각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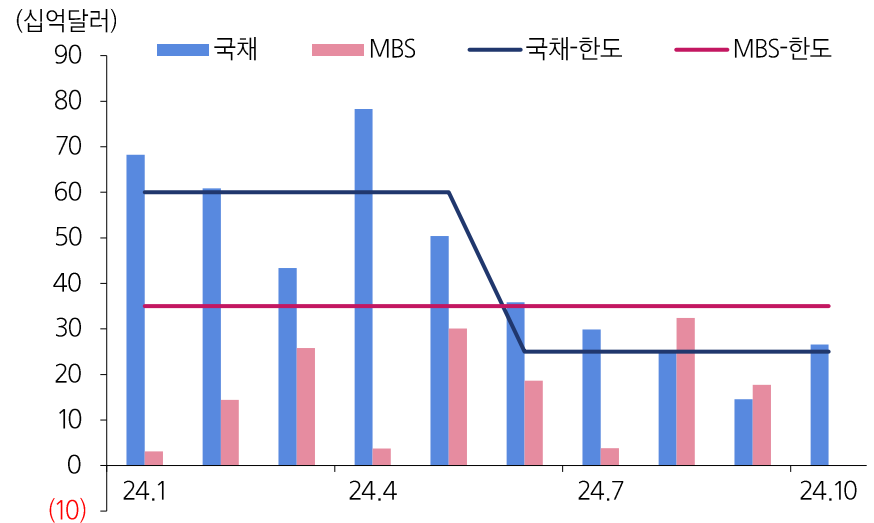
- 한편 연준의 자산긴축 지속으로 인해 역레포 시장의 자금은 이미 6,690억대까지 축소. 지금까지는 역레포 시장에 머무르던 단기자금이 레포와 지준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지준의 고갈을 방지
- 연말되면 역레포 시장 자금 추가 감소 여력 더욱 줄어들면서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은 다시 확대될 수도
- 아직까지는 단기자금 고갈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1분기경 QT 중단 논의될 것

연준 대차대조표 부채변



자료: Bloomberg

연준 대차대조표 자산변: 월간 증감



자료: Thomson Reuters

결론 연말 10년금리 4% 하회 가능성 높다고 판단

3개월 비중 확대 전환

- 레포 금리 불안, 트럼프 트레이드, 지표 호조 등 리스크 부각. 다만 연말까지는 10년금리 다시 4% 하회 가능성 높을 것
- 현재 금리인 4.2% 정도는 상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한 레벨이라고 판단
- 대선 전까지는 중립 포지션 유지하되, 대선 이후 미국 10년 금리 4% 이상 구간에서 점진적 비중 확대

장단기 금리차



자료: Bloomberg

미국 금리 전망표

	24.1Q	24.2Q	24.3Q	24.4Q F	25.1Q F	25.2Q F
기준금리	5.50	5.50	5.00	4.50	4.25	4.00
2년금리	4.49	4.84	4.06	3.90	3.65	3.40
10년금리	4.15	4.45	3.96	4.00	3.80	3.60
2/10년 Spread	-34	-39	-11	10	15	20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주: 기준금리는 기말, 시장금리는 분기 평균

02

크레딧과 신흥국

미국 크레딧 IG, HY 3개월 종립

경기 둔화 압력 부담으로 스프레드 보험권 회복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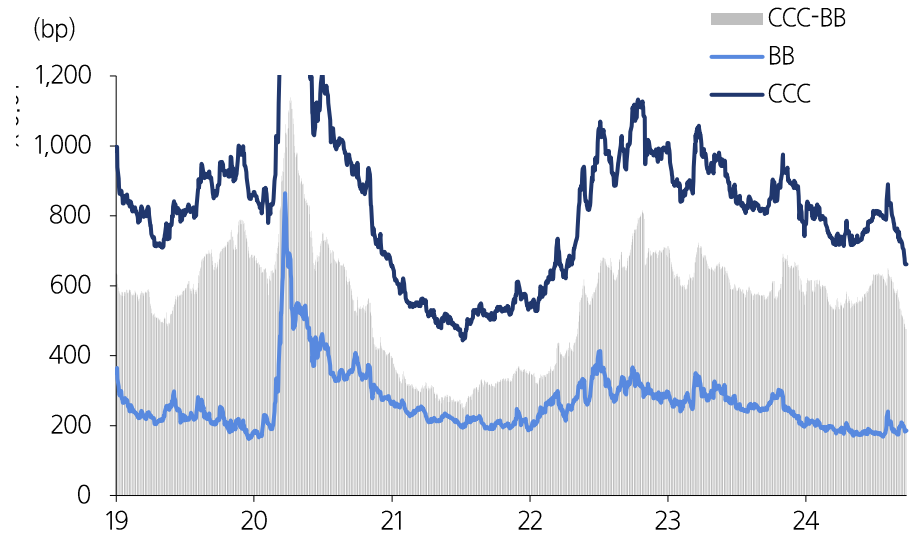
- 크레딧 스프레드는 미국 경기 호황 국면이었던 2012년 초까지 축소됐으며, 투자등급 기업 조달금리는 이미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황
- 최근 주식시장 반등에 따른 큰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인해 최하위 등급 크레딧 강세가 전체 강세 건인 중이지만, 최근 단기 자금 시장 불안 나타나는 가운데 대선 등 불확실성도 가중
- 향후 완만한 경기 둔화 반영하며 스프레드 추가 축소는 어려울 전망

정책금리와 크레딧 YTW



자료: Bloomberg

하이일드 등급간 갭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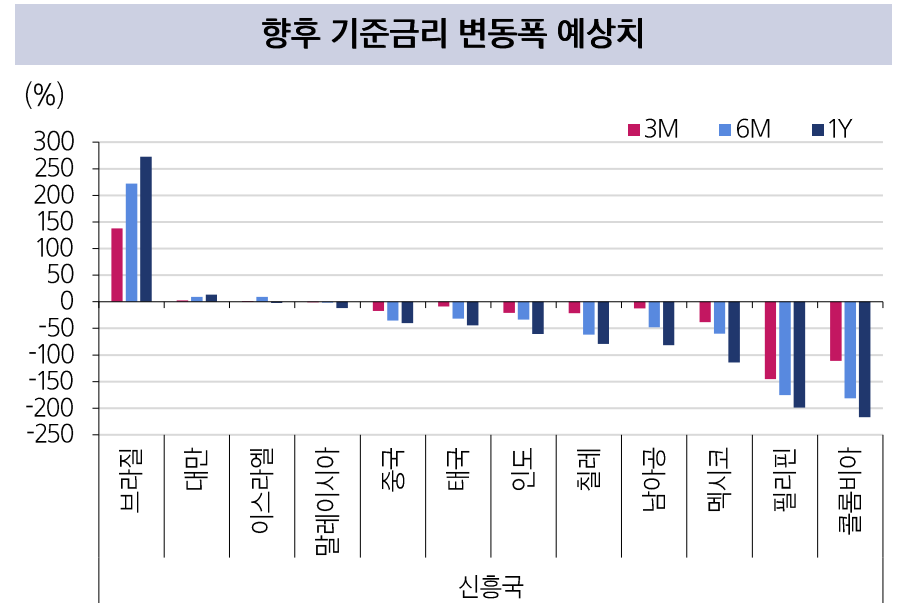
신흥국 3개월, 12개월 모두 중립 유지

연말까지 중립 지속

- 중동 이슈 완화에 따른 EMBI 스프레드 축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벤치마크 금리 상승이 이를 상쇄하며 수익률은 전월대비 1.5% 하락
- 이스라엘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어지는 가운데 달러 강세 압력 연장을 신흥국 채권 투자심리 부진한 상황
- 브라질과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이어진다는 점도 부담

			종합	라틴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Performance	1M	%	(1.51)	(1.82)	(1.15)	(1.82)	(1.48)	(0.69)
	3M	%	2.64	3.05	2.19	1.83	1.93	4.37
	YTD	%	7.01	8.02	6.51	3.82	5.21	12.64
	1Y	%	18.78	21.18	16.45	13.89	15.23	28.80
Spread	현재	bp	337.8	433.0	255.0	265.0	174.0	463.0
	1M	bp	(23.3)	(8.0)	(18.0)	(4.0)	(12.0)	(120.0)
	3M	bp	(62.5)	(43.0)	(122.0)	(20.0)	(27.0)	(158.0)
	YTD	bp	(46.2)	67.0	(191.0)	(30.0)	(47.0)	(271.0)
	1Y	bp	(109.4)	17.0	(250.0)	(81.0)	(99.0)	(421.0)
YTW	현재	%	7.7	8.7	6.8	7.0	6.0	8.9
	1M	bp	20.0	36.0	27.0	40.0	31.0	(74.0)
	3M	bp	(69.0)	(64.0)	(134.0)	(46.0)	(43.0)	(70.0)
	YTD	bp	34.0	127.0	(54.0)	7.0	(1.0)	(96.0)
	1Y	bp	(158.0)	(146.0)	(153.0)	(146.0)	(147.0)	(242.0)
Duration	현재	년	6.7	7.5	5.7	6.3	6.5	5.4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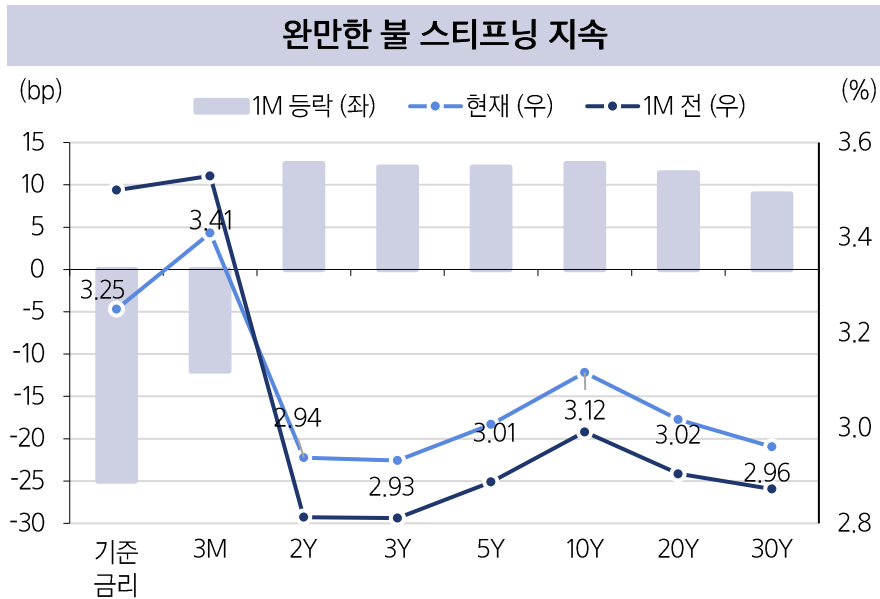
03

국내 국공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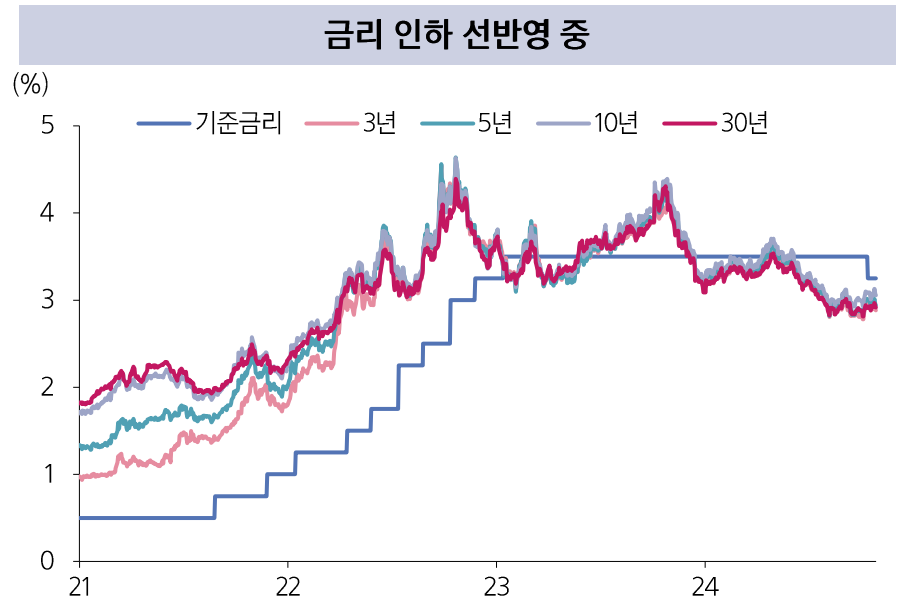
국내 채권 Review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리 소폭 상승

-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외금리 상승에 연동되며 금리 소폭 상승
- 다만 미국의 상승폭 대비해서 오름폭은 크지 않음
- 미국과는 달리 경기와 물가 지표가 모두 예상을 하회하는 가운데 WGBI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추정



자료: Infom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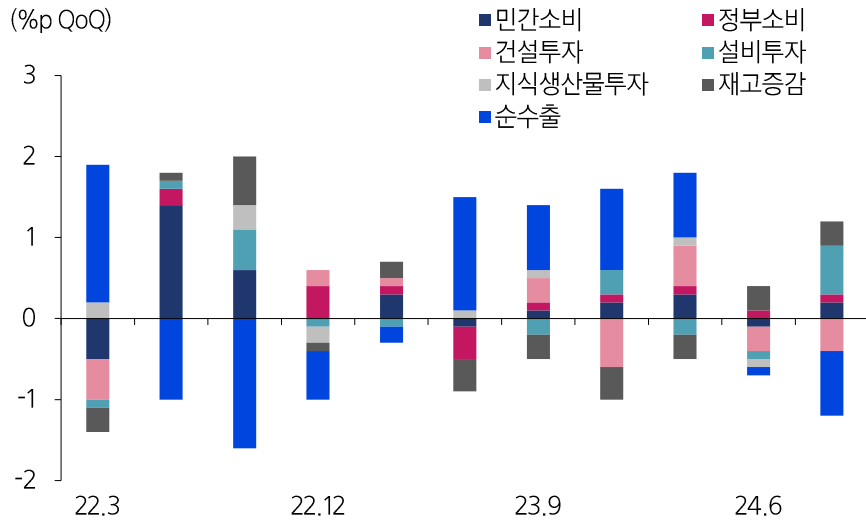
자료: Infomax

한국 GDP 순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

한은 전망치인 연간 2.4% 성장 사실상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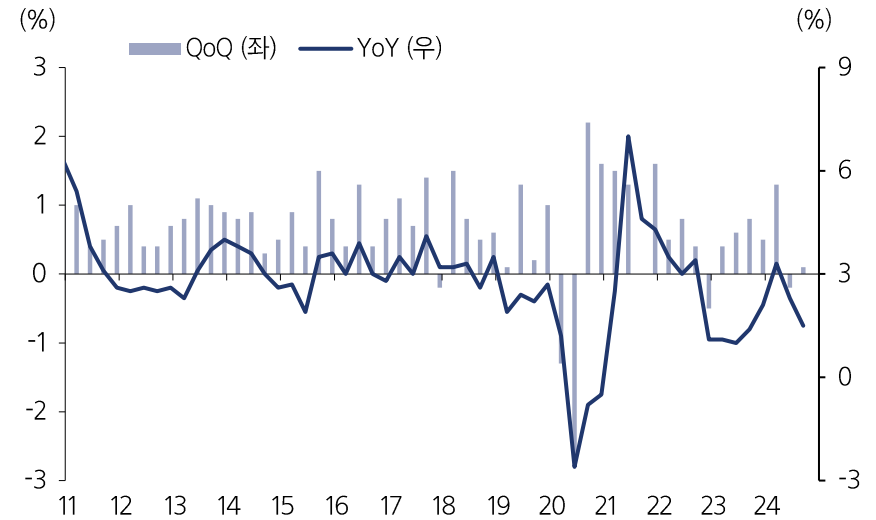
- 3분기 GDP YoY 1.5%, QoQ 0.1% 성장에 그치며 컨센서스 (YoY 2.0%, QoQ 0.4%) 대폭 하회. 2분기 역성장한 기저효과에도 미미한 회복
- 기여도: (내수 0.9%p) + (순수출 -0.8%p)로 나누어 보면 내수가 좋아 보이지만, (민간 -0.4%p) + (정부 0.5%p)로 분해해보면 높은 내수의 기여도 또한 대부분 민간이 아니라 정부에서 비롯됐다고 추정
- 2분기 연속 성장 쇼크로 한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4%는 달성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연간 2.2% 내외의 성장률 예상

순수출과 건설투자 감소폭 확대, 민간소비 반등도 미미



자료: Thomson Reuters

YoY 1%대 성장은 5개 분기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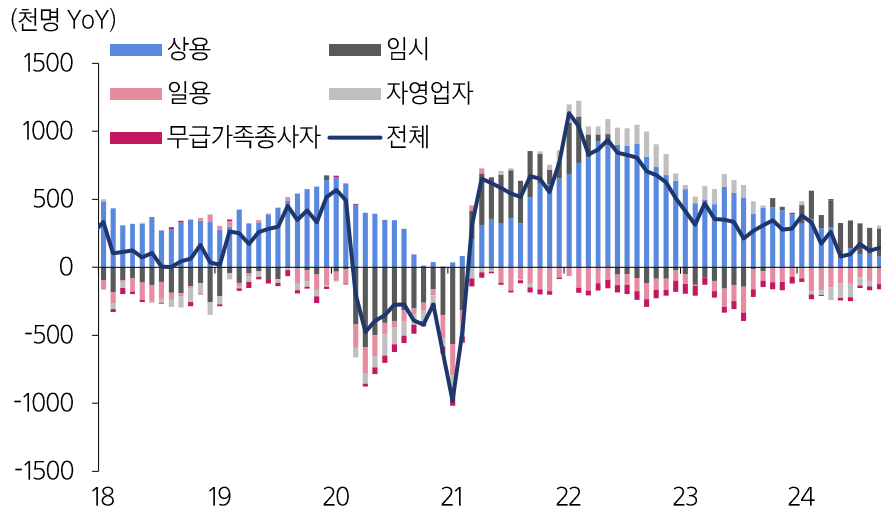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고용시장과 물가도 하향 중 취업자수 반등은 임시직 착시

상용직 고용자 증가속도는 침체 국면 수준. 물가는 2% 근처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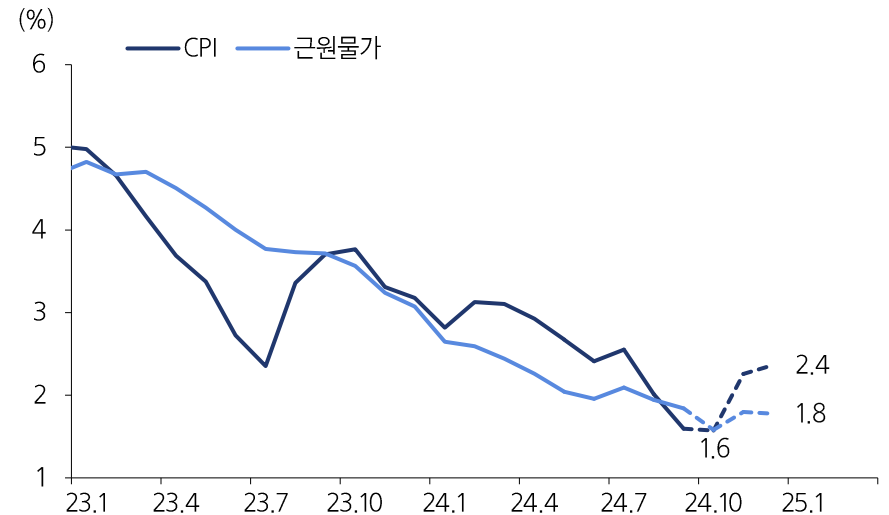
-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4.4만명으로 늘어나면서 개선 조짐. 다만 임시직의 증가폭이 20.6만명으로 증가세의 대부분을 기여
-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을 시사하는 상용직 증가폭은 7.9만명에 그침. 상용직 증가폭이 7.9만명 미만이었던 적은 코로나팬데믹(2020년)과 IMF(1999년) 시기밖에 없음
- 물가는 9월에 1.6%까지 둔화됐는데 10월 물가도 1.5~1.6% 정도로 예상 이 경우 한은이 제시한 하반기 전망치인 2.2%보다 0.1%p 낮아질 전망

취업자수 증가세 재확대 조짐. 그러나 상용직은 여전히 부진



자료: Thomson Reuters

소비자물가 저점은 9~10월 형성. 이후 2% 근처 안정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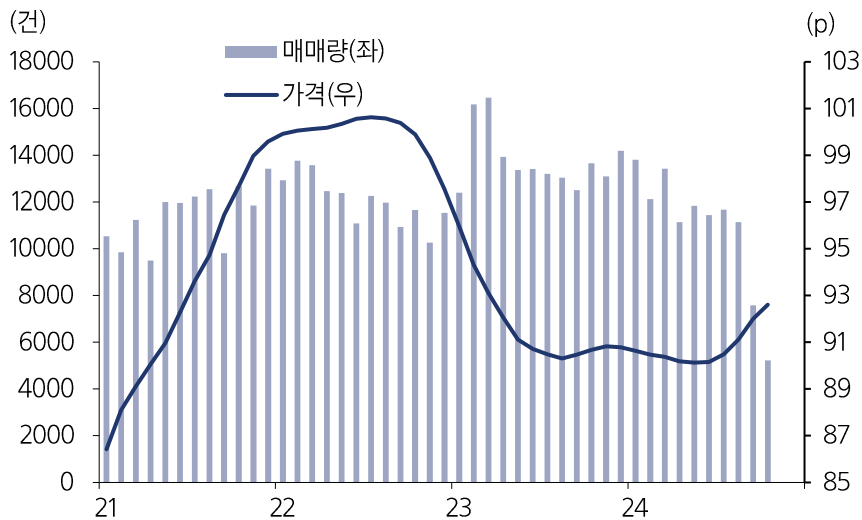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금융불안 소폭 완화됐으나, 추가 데이터 확인 필요

아파트 거래량 대폭 축소 vs. 대출 증가폭 둔화 속도 유의미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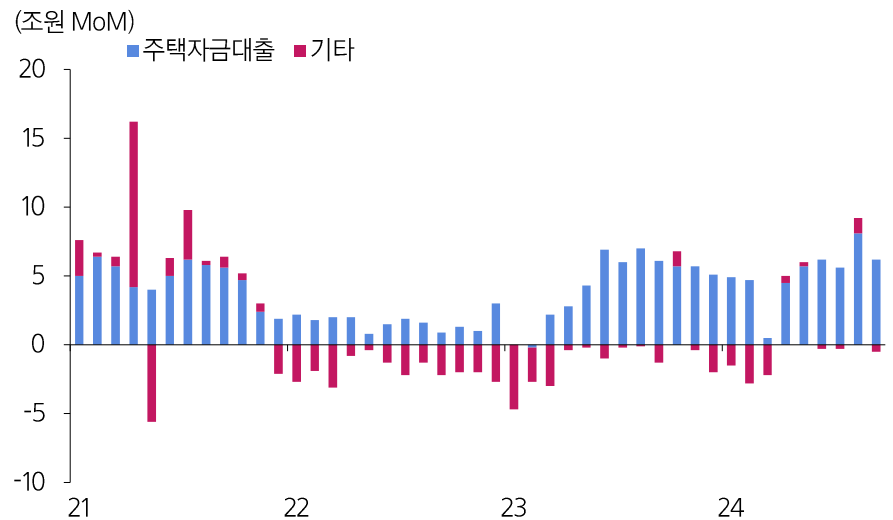
- 9월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5.7조원 증가해 전월 9.2조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축소
- 대출 증가폭이 유의미하게 둔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부동산 가격에 선행하는 아파트 거래량이 9~10월 들어 7~8월의 절반 미만으로 감소한 점은 긍정적
-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가산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금리 추가 하락 여력 크지 않음
- 다시 가계대출 급증을 뒷받침 하기는 어려울 전망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가격



자료: KB부동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9월 주담대 증가폭 소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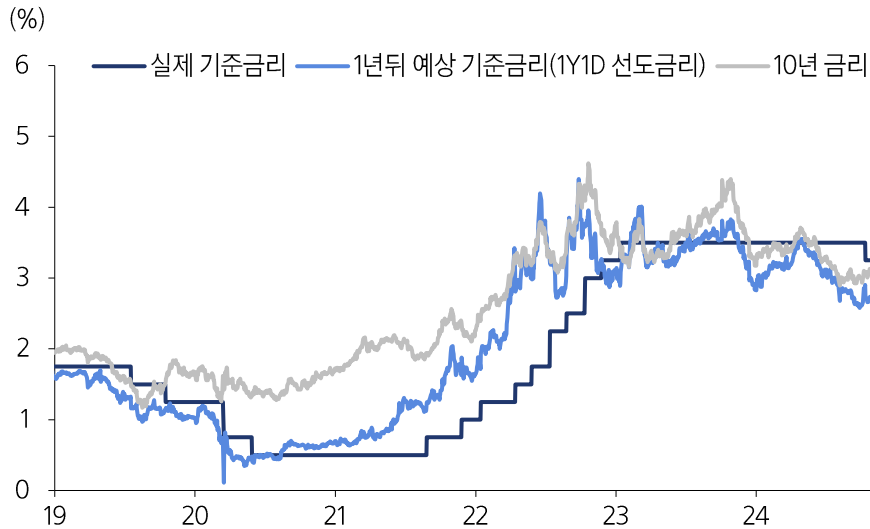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11월 28일 금통위 이미 내년 인하까지 반영

올해 추가 인하보다는 내년 세번 인하에 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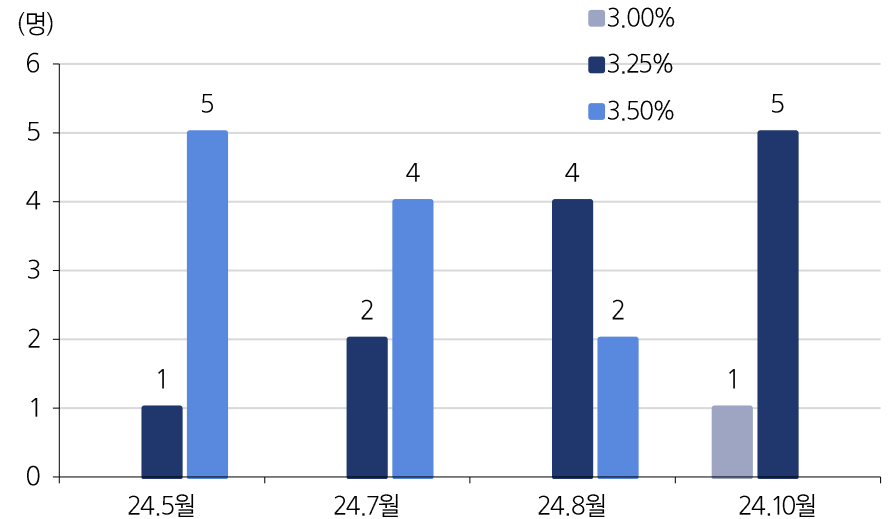
- 총재는 11월 28일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Data Dependent 하다며, 3개월 뒤 서베이로 볼 때 현재로서는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
- 경기 펀더멘탈이 모두 추가 인하를 가리키고 있지만 추가 인하 확신을 가지기에는 11월 한달은 다소 짧은 기간
- 최근 들어 미국의 고용과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점도 부담
- 올해 연말까지 경기 둔화 데이터 충분히 확인한 뒤 내년 1월 추가 인하 예상

선도시장에서 예상하는 1년뒤 기준금리는 2.75%



자료: Thomson Reuters

3개월뒤 적정 기준금리에 대한 금통위원 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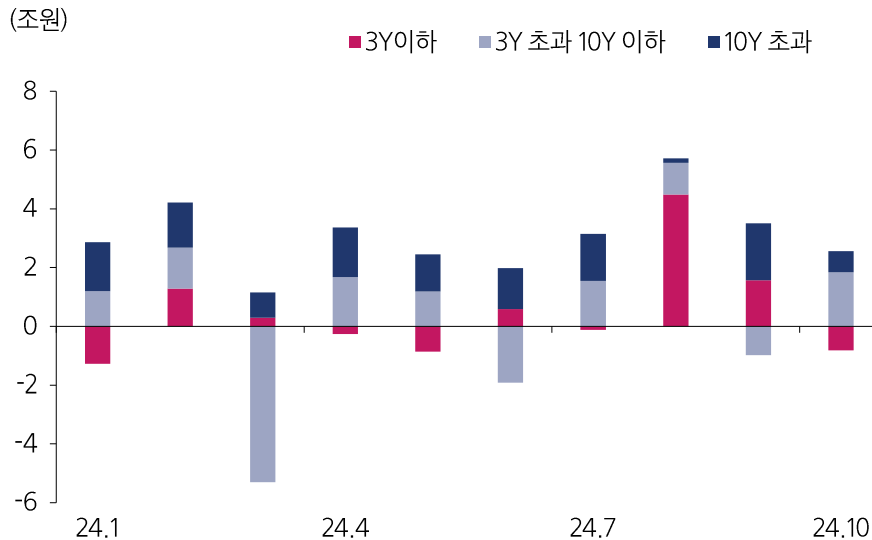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WGBI 편입 확정 월간 3~6조원 유입 가능

내년도 국고채 발행량 증가분인 30~40조원 상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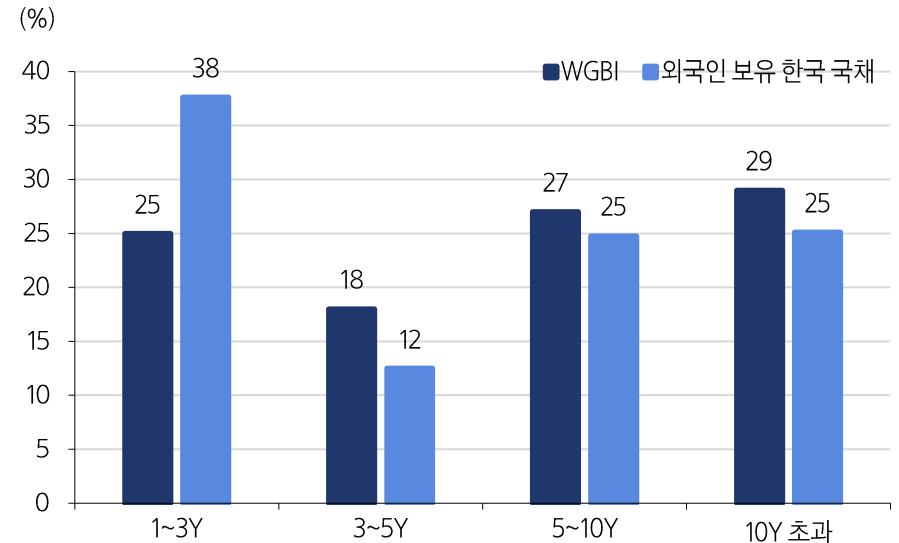
- 9일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확정. 실제 편입은 내년 11월 실시
- 외국인 유입 규모 약 550억~660억달러(=75~85조원)추정. 전체 국고채 발행 잔액의 약 7%. 외국인 보유 국채잔액의 약 35%에 해당
- 통상 1년~1년 반 정도에 걸쳐 유입되므로 월간 3~6조원 정도로 추산. 최근 1년간 월평균 외국인 자금 유입액은 약 1.6조원
- 다만 7~9월 월평균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액 이미 4조원 정도로 증가. 지금보다 더 강한 순매수가 이어져야 금리 하락 압력으로 작용 가능

월별 외국인 국채 현물 순매수액



자료: Thomson Reuters

WGBI와 외국인 보유 국채 만기별 비중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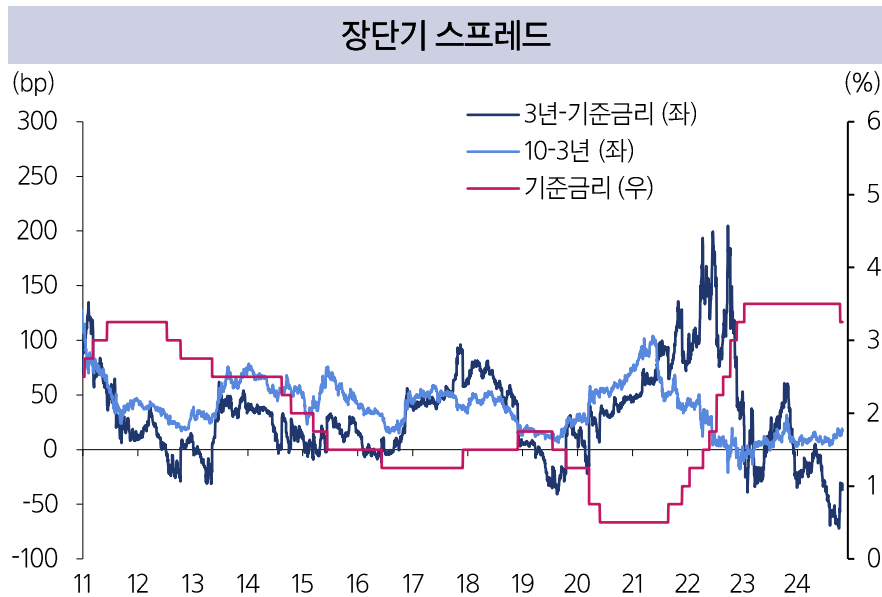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결론 3개월과 12개월 비중 확대

내년 말 기준금리 2.5%. 10년 금리 2.7% 정도 예상

- 미국 10년 금리가 연저점대비 58bp 상승한 가운데, 한국은 18bp 상승에 불과
- 미국과는 달리 경기와 물가 지표가 모두 예상을 하회하는 가운데 WGBI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추정
- 미국과 비교하여 기준금리와 장기물 금리 모두 추가 하락 여력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향후 12개월 약 20~30bp 정도 하락 여력은 남아 있다고 판단. 3개월과 12개월 모두 비중 확대



자료: Thomson Reuters

한국 금리 전망표

	24.1Q	24.2Q	24.3Q	24.4Q F	25.1Q F	25.2Q F
기준금리	3.50	3.50	3.25	3.00	3.00	2.75
3년 금리	3.31	3.39	2.97	2.75	2.70	2.60
10년 금리	3.39	3.49	3.06	2.90	2.90	2.80
3/10년 Spread	8	10	9	15	20	20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주: 기준금리는 기말, 시장금리는 분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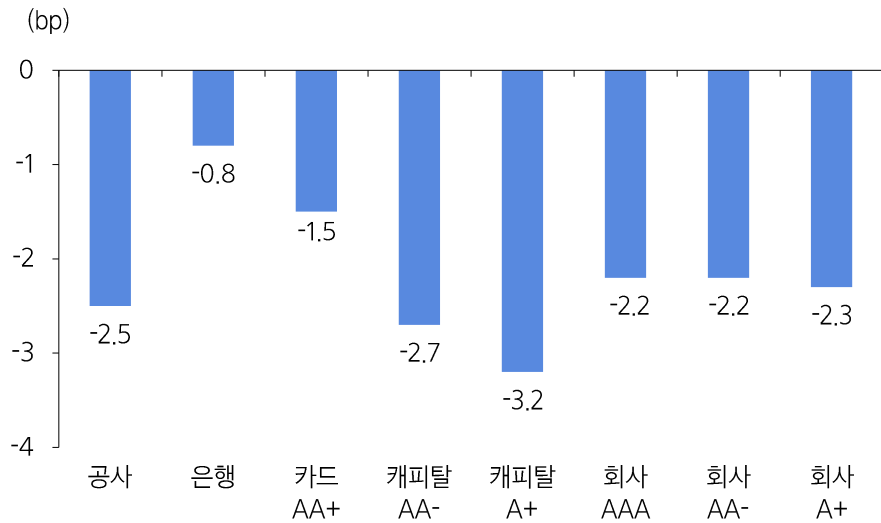
04

국내 크레딧

경기 둔화 사이클 시작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수요 유입 지속으로 스프레드 상단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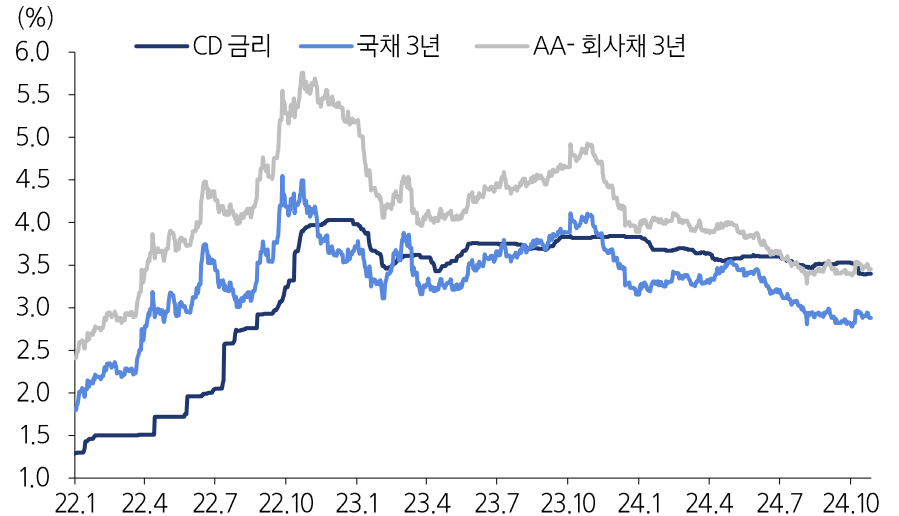
- 기준금리 인하 이후 발행량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시장 전반적으로 스프레드 소폭 축소
-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내년 2~3차례의 추가 인하가 프라이싱된다면 크레딧 시장 투심 추가 회복도 가능
- 한편 CD금리와 회사채 금리간 역캐리는 해소된 가운데, 국채와 CD 금리 역캐리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경기 둔화 사이클 본격적으로 시작돼 스프레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회사채 수요 유입 지속되면서 스프레드 상단은 제한될 전망

전월대비 신용스프레드 등락



자료: 인포맥스,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

CD-회사채금리 역전 -9bp 정도. 기준금리 1회 인하시 해소



자료: 인포맥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전략 및 투자프로세스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관련법령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투자전략 및 투자프로세스를 결정하므로, 본 자료에 기재된 사항 중 관련법령 및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대표전화: 02-3774-7600 콜센터: 080-377-4777 [상담시간안내: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